

전국 최초 홀로그램 엑스포 '팡파르'

25일부터 3일간 익산 원광대학교서 개최 전시·공연·체험 등 홀로그램 공감 확대 융·복합 기술 활용 적용방향 전문가 토론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걸맞은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홀로그램 엑스포가 국내 최초로 전북 익산에서 펼쳐진다.

전북도과 익산시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관련 산업 전시회인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는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홀로그램 산업 육성의 선도지로 공표하는 동시에 홀로그램 기술 전시·체험 등을 통한 홀로그램 산업 육성 분위기 조성하고 대국민 홍보·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25일 홀로그램 엑스포 개막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이춘석 국회의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현을 익산시장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 기업,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 퍼포먼스 공연 등이진행된다.

이번 홀로그램 엑스포에서는 홀로그램 장비 및 콘텐츠 전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홀로그램 아쿠라리움, 홀로그램 영상 등이 전시·시연된다.

여기에는 KT, SK텔레콤, LGU+, 홀로랩 등 25여개 홀로그램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홀로그램 관련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홀로그램 산업의 현재 수준과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람객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홀로그램 융복합기술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홀로그램 현황 및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융복합 기술 활용에 대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최근 홀로그램 융합기술의 현황과 전망, 표준화 동향,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및 연구개발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 기업,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홀로그램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 및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트레이드 페어에서는 맞춤형 기술매칭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IP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홀로그램을 개발하는 10개 기업·투자사·연구소 등이 참가하여 기업 R 및 기업-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북도와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함께 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이날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여 "홀로그램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이제는 홀로그램 산업이 익산에서 활짝 꽃피우며 지역경제의 근간 산업이 되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홀로그램 기술은 문화,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홀로그램 엑스포에서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 경험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익산=장인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 위해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문 대통령,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이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지원 우수사례 전시관 등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함께 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다”면서 “전기차 생산 투자와 더불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전라북도가 미래차 시장 선점과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영수 원장은 “자동차 및 뿌리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산·학·연·관이 하나되어 성과 공유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역량 강화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정착 위해!

자동차·뿌리기술 협업페어 성황... 상생협력의 장 마련 기업인·국내외 대체부품 전문가·구직자 등 1천여명 참가 기술성과전시회·일자리 한마당·토론·체험행사 등 다채

2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관 상생협력 기반 사업다각화 기회 마련을 위한 '제3회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가 기업·유관기관·학생·구직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뿌리산업 분야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9 자동차 대체부품 국제포럼에 초청하여 전라북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체부품 시장 진입을 위한 도내 기업들의 열띤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라북도를 대체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일자리 한마당은 28개 기업이 참여하여 1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으로, 많

은 재취업 희망자 및 대학생, 예비취업자들의 방문이 성황을 이뤘으며 오늘 오전까지 계속된다.

그 밖에도 기술의 융합 및 협력을 주제로 자동차·뿌리 기업 및 전기전자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 기술 융합관, 대체부품 및 미래기술 홍보관, 상용 및 특장차 전시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우수사례 전시관 등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함께 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다”면서 “전기차 생산 투자와 더불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전라북도가 미래차 시장 선점과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기간 운영

전북도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과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관리대상은 소각로운영 사업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같은 대기분야를 비롯해 저울철 수은 변화에 민감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4·5종 폐수 배출사업장 및 과거 위반사업

장이며, 특히 산단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10. 24~10. 25)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 순회교육(전주, 군산, 익산, 완주)을 통해 배출시설 관

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운영매뉴얼 700부를 제작·보급하고, 1:1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업무 미숙에 의한 환경오염사고와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현장관리 매뉴얼은 11월 4일부터 산단 입주 4~5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청 환경보전과(063-280-4535)에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별 순회교육 일정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첫 주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